

간강한작은교회연합(간작연)은 간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 간 연합기구로서 2005년 10월 30일 설립되었습니다. 간작연은 설립 이후 회원교회 간 우대강화 및 협력사역을 전개하고, 교회개혁 시민단체를 지원 협력하며, 간강한 작은 교회의 태동과 확산을 위한 지원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이안 머리”는 ‘하나님에 의한 부흥’과 ‘사람에 의한 인위적인 부흥주의’의 차이를 미국교회의 역사를 통해 설명합니다. 또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교회의 대형화, 권력화, 자본화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줍니다. 반대로 바른 부흥과 성장의 이해를 통해 하늘의 생명을 품은 교회의 생명적 약동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버리지 않으며, 교회는 바르게 부흥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주제도 함께 설명 합니다.

부흥과 성장은 건강한 교회가 회피할 주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깊고 넓게 고민해야 할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오늘의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부흥과 성장의 고리가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거룩한 생명의 약동을 찾아보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제 겸허히 우리를 돌아보며 이 땅에서 건강한 교회의 자리남을 위하여 지혜를 모아 보려고 합니다.

행사 프로그램

10:00 ~ 12:00	주일 예배		사회: 이헌주 목사 설교: 황영익 목사, 신용은 집사
12:00 ~ 13:30	점심 식사		4층 식당
14:00 ~ 16:00	소그룹1	교회 운영위원	민주적 운영의 허와 실 / 방인성 목사
	소그룹2	교회 교육부 연합	민주적인 다음세대 세우기 / 전용제 목사
	소그룹3	장년 연합1	민주적인 역량의 개인적 한계 / 황병구 본부장
	소그룹4	장년 연합2	민주적인 교회에서의 목양적 돌봄이란 / 김정태 목사
	소그룹5	장년 연합3	민주적인 교회에 대한 다른이의 시선 / 황영익 목사
16:00 ~	소그룹6	청년 연합	청년 연합활동 / 김성한 간사
정리 및 뒷모임			

※당일 소년부와 청소년부를 위한 예배와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 소년부 : 창조하신 세상을 소중히 지켜요 | 환경문화 NGO “온살” - 청소년부 : 청소년과 함께하는 원데이 영화 클럽 | 영상문화연구소 “필름포스”

강사 및 주제 소개

소그룹 1 | 민주적 운영의 허와 실



방인성 목사 함께여는 교회 담임목사
(사)하나누리 대표, 뉴스앤조이 이사장, 희년실천운동 공동대표, 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

건강한교회를 지향하는 공동체는, 민주적운영이라는 명제가 때로는 성서의 권위 만큼 높아져있습니다. 교회공동체의 유기적 생명체에 대한 이해 없는, 민주적운영은 자칫 교회의 본질과 선교사명을 훼손할수있습니다. 건강한작은교회를 이루려는 우리들의 민주적운영을 정직하게 드러다 보아야 될 현실입니다. 진정한 민주적 교회운영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그룹 2 | 민주적인 다음세대 세우기



전용제 목사 하늘샘교회 담임목사

민주적인 교회의 다음세대 세우기는 능동적 참여와 함께 불의에 대한 저항의 일상을 용기 있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능동적 참여는 자기통제와 함께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신뢰로 바라보아 주는 것이며, 저항의 일상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생겨나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다음세대를 교회와 사회에서 민주적인 주체로 세워가야 합니다.

소그룹 3 | 민주적인 역량의 개인적 한계



황병구 본부장 한빛누리재단
많은물소리 편집인, 복음과상황, 조이선교회, 미래나눔재단 이사, 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

민주적 정관이라는 틀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민주적 성도의 주체의식과 민주적 정관을 움직여가는 프로세스를 가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민주적인 주체의식 부재는 정관을 아무리 촘촘하게 만든다 해도 무용지물이 되게 합니다. 성도 개인이 갖추어야 할 민주적 역량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소그룹 4 | 민주적인 교회에서의 목양적 돌봄이란



김정태 목사 사랑누리교회 담임목사
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

‘전통적 교회의 직제, 그대로 두자니 불안하고, 없애자니 불편하고 어쩌면 좋을까요?’ 민주적인 교회에서 목양적 돌봄의 범위와 필요는 어디까지 일까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목회 현장에서 배운 것 들을 진솔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소그룹 5 | 민주적인 교회에 대한 다른이의 시선



황영익 목사 푸른나무교회 담임목사
미셔널처치 연구가(Ph.D.) 교회2.0목회자운동, 우리마을연구소 소장

민주적 교회라는 가치와 이상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이를 이루어내는 지혜와 교회운영의 방법론입니다. 민주적 교회는 평신도의 지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상을 허상으로 만들지 않는 총체적인 시선과 방법론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소그룹 6 | 변화된 세상, 우리가 찾는 교회는?



김성한 간사 IVF 강원지방회 대표간사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에서 박사 과정(Intercultural Studies)수료

이번 이런교회다니고 싶다에서는 ‘post’라는 접두어를 사용하여 교회와 교회가 위치한 시대와 상황을 살펴보고, 청년들의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을 함께 고민하려고 합니다. 2017년 가을에 나온 <청년트렌드 리포트>의 내용도 같이 다룰 예정입니다.

알림

1. 주차는 복사골문화센터 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2. 점심은 4층 구내식당을 개별 이용하시면 됩니다. (식대 5,500원)
3. 문의 : 예인교회 / 032.328.0692

